

목포 도심 주차장 속속 조성...주차난 숨통

버스터미널 옆·북향 차관주택 등 연내 660면 확장
민선 6기 공약사업 순조...상습 불법 주정차 사라질 듯

목포 도심 곳곳에 주차장이 조성돼 도심 주차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5일 목포시에 따르면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사업비 58억원을 들여 도심상가 인근 공영주차장과 소규모 주차장 등 총 660면을 조성하기로 한 공약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포시는 민선 6기 출범 직후 연차사업으로 2017년 말까지 버스터미널 옆, 하당 놀부정 주변, 고하대로 차관주택 주변 등 3곳에 면적 6324㎡에 247면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들 3곳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데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36억5100만원으로, 지난해 말까지 16억2800만원이 투입됐다.

목포시는 올해 버스터미널 옆 5억2300만원, 하당 놀부정 주변 2억원, 북향 차관주택 내 10억원 등 17억2300만원을 투입해 연내 모든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현재 버스터미널 옆은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올해 5억2300만원의 예산을 세워 잔여 부지(796㎡)를 추가로 매입해 연말까지 총 64면을 확보하게 된다. 이곳에 주차장이 조성되면 시외버스를 이용해 목

포에서 광주 등 타지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주차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하당 기독교병원 일대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52면을 조성하는 놀부정 주변은 지난해 7억원을 투입해 보상을 마무리한 데 이어 올해 2억원이 반영돼 하반기 중으로 완공될 전망이다.

특히 고질적인 주차문제로 큰 불편을 겪고 있는 북향 차관주택 단지 내 주차장은 단지 내 도로의 인도를 축소해 1단계로 갖길 주차장 2곳을 조성하고, 2단계로 공영주차장 1곳을 추가로 조성하게 된다.

목포시는 보건소 뒤편에서 신안군 수협 목포지점까지 총 연장 439m의 구간에 3m에 달하는 인도 폭을 1.2m로 줄여 포켓식 주차장 51면을 조성하고 있으며 오는 3월 말 준공을 앞두고 있다.

또 주민참여 예산 2억원을 들여 연내 보건소 맞은편에 50면을 추가로 확보하는 사업과 함께 단지 내 별도의 부지를 선정해 사업비 8억원(지속 4억, 시비 4억)을 들여 2018년까지 3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도 함께 추진된다.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131면의 주차장이 확보돼 상습 불법 주정차로 사실상 차



목포시가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2017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사업비 58억원을 들여 총 660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목포시가 최근 확장한 동부시장 주차장 모습.

량 교통이 불가능했던 불편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목포시는 지난해 전통시장 주차장 확장을 위해 총 사업비 13억5000만원(국비 8억1000만원, 시비 5억4000만원)을 들여 자유시장과 동부시장 주차장을 확장했다. 이 사업으로 자유시장의 주차면수는 50면에서 76면으로 26면이 늘어났고, 동부시장은 84면에서 121면으로 37면이 늘어났다.

이와 함께 '목포 제2의 평화광장'으로 불리며 시민과 관광객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는 북향 노을공원 주차장 조성도 올

해부터 본격화된다.

목포 해경안전서 주변 9,922㎡에 총 337면이 조성될 이 사업에는 총 사업비 10억원이 투입되며 전액 국비로 추진된다.

박흥률 시장은 "버스터미널 등 3개소에 주차장이 조성되면 주차문제가 심각한 주변지역의 주차난 해소는 물론 보기 좋은 주변 환경이 깨끗하게 정비될 것"이라며 "소규모 동네 주차장 조성도 2월까지 대상지를 선정해 3월부터 주차장 조성에 나서 연내 660면 주차장 확장을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평화광장에 대형 조형물 '러브게이트' 설치한다

'춤추는 바다분수'로 유명한 목포 평화광장에 대형 조형물이 설치된다.

15일 목포시에 따르면 '스토리가 있는 연인의 거리'로 명명된 평화광장 일대(갯바위 달맞이 공원~평화의 구름다리까지 1.2km)를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한 상징 조형물 설치 공사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목포시는 사업비 1억3500만원을 들여 지난해 8월 공모전을 통해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러브게이트'(LOVE GATE)〈조감도〉를 원형무대 주변에 설치해 포토 존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러브 게이트'는 사랑을 테마로 목포의 지역성과 사람이야기를 결합시킨 조형물로 평화광장 앞바다를 향해 열려있는 게이트를 통과하면 내부는 하트모양의 터널 형태로 돼 있다.

조전형 목포시 관광과장은 "청년, 연



인, 가족단위 관광객을 타깃으로 평화광장 주변에 밀집된 상권을 브랜드화하고, 독특하고 차별화된 콘텐츠를 개발해 관광명소로 변모시키는 게 이번 사업의 골자"라면서 "이달 중으로 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2월 제작·설치 계약을 의뢰해 3월말까지 조형물 설치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시는 목포 춤추는 바다 분수가 재개장하는 4월 1일에 맞춰 연인의 거리 선포식 이벤트를 대대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유달산·항구축제 통폐합하고 개최시기 변경 추진

목포시의 대표 축제인 '꽃피는 유달산 축제'와 '항구축제'를 통·폐합하고 축제 개최 시기도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목포시는 15일 "1월 한달 동안 목포시 홈페이지, 서면접수, 공문 우편 발송 등의 방법을 통해 꽃피는 유달산축제와 항구축제 통·폐합, 항구축제 시기 결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목포시는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오는 2월 초 축제추진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 통폐합 문제와 개최 시기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그동안 항구축제의 경우 땀방이 내리 쏘는 8월에 개최되면서 주간에 프로그램 진행하기 어렵고 선박 동원 등 항구 축제의 특성을 살리지 못해 우수축제 평가 시 애로점이 많아 개최 시기를 변경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돼 왔다.

목포시 관계자는 "꽃피는 유달산 축제는 개화시기인 4월에 개최되기 때문에 항구축제와 통합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다만 항구축제 개최시기 변경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변화를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임영준기자 lyc@

시정 신뢰도 높이기 '통합 성과관리제' 운영

목포시 공정성·객관성 확보

박흥률 목포시장이 민선 6기 분수령이 될 올 한해 성과중심 행정과 책임행정 실현을 위해 '통합 성과관리 시스템 운영'이라는 비장의 카드를 꺼내들었다.

박 시장은 상반기 정기인사를 앞두고 15일 "통합 성과관리 시스템을 활용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업무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창의적인 지표를 발굴해 시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시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를 향상시켜나갈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박 시장은 이를 통해 업무중심의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으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자율적 업무 수행에 대한 동기부여와 조직발전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나서는 한편, 평가결과를 성과급에 반영하는 등 성과지향적인 조직문화를 형성하겠다고 밝혔다.

평가는 부서평가와 4~5급 개인 평가로 나눠 실시되며, 부서평가는 66개(실과소 42곳, 동 주민센터 23곳, 시의회 1곳), 개인



박흥률 시장

평가는 79명(4급 9명, 5급 70명)이다.

또 평가 시기는 6월말과 12월말 두 차례 통합 성과관리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실시된다.

성과지표는 중요도·난이도·적정성 등을 수치로 환산해 평가하고 평가지표는 총 282지표(세부지표 277, 공통지표 5)로 세분화된다. 이 가운데 공통지표는 기업유치, 전파전절도, 재정조기집행, 장애인 생산품 구매, 시정홍보 등이다.

이 성과지표와 공통지표를 근거로 부서평가를 실시하고 개인평가는 부서성과점수에 직무역량, 시정발전 기여도 등을 따져 S등급(20%), A등급(30%), B등급(30%), C등급(20%) 등 4단계로 평가한다.

박 시장은 "내년 초 목표 달성도와 역량 등을 종합평가해 평가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우수부서는 표창·시상할 방침"이라고 시사했다. /목포=임영준기자 lyc@

목포시 '산불 제로화' 등 산림재해 방지 총력

목포시가 산림재해 방지를 위해 산불예방 캠페인·진화대원 역량 교육·방화선 구축 등 총력전을 펼쳐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15일 목포시에 따르면 아름다운 산림경관을 조성하고 산림 재해로부터 철저한 관리를 위해 산림 분야에 종사할 근로자를 선발한다.

이번에 선발할 인원은 산불 전문 진화대 26명, 병해충 예방 방제단 1명, 공공산림 가꾸기 4명, 도시녹지관리원 1명 등 총 32명이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총 3억5200만원(국비 1억3200, 도비 5900, 시비 1억6100만원)이 투입된다.

특히 목포시 공원과서는 이와 별개로 도심권 40명과 섬 지역 4명 등 44명의 산불감시인력을 상시 배치해 지역별 현장 위주 산불감시 활동으로 산불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



목포시는 매월 산불전문 진화대원들을 대상으로 산불진화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단시켜 최근 10년 동안 단 한차례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최양선 목포시 산림담당은 "산불예방 캠페인과 진화대원 역량 교육을 매월 1회 이상 실시하고 특히 섬 지역의 산불 예방을 위해 반상화·영농교육 시 예방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철저한 현장위주 감시활동으로 산불발생 제로화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새 얼굴

"윤리경영 바탕 농어민 행복 증진"

최 광 섭 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장



"농어민의 행복증진 및 신뢰기반 윤리경영을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최근 취임한 최광섭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장은 15일 "직원들과 함께 원칙과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존중 조직문화 구축, 신성장 동력 사업 발굴, 철저한 재해 대비, 청렴한 업무처리, 노사불이(勞使不二)문화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영산강3, 4지구 대단위 농업종합개발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을 통해 지역 농어민의 안정적 농업생산기반 조성과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최 단장은 한국농어촌공사 본사와 경기지역본부 등을 거쳐 전남지역본부 무안·신안지사 지역개발부장, 강진지사장 등을 지냈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

착한보청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 표창 · 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신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상가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0-3600-9955

NAVER 주소(D) 대산프리모 가발

백범대입구, 남구, 500m, 우리은행, 대산프리모가발